

이코노&비즈 피플

본사 나주 이전 마친 이 상 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혁신·소통...지역과 함께 새로운 100년 열겠다”

해외사업 비중 5년내 20~30%로
신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공기업 도약
지역인재 채용...지역발전 힘 보탬 것



바탕으로한 경영혁신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이 사장은 지난해 9월 취임과 동시에 미래창조혁신실과 스마트워크추진단을 신설하고 문서 없는(Paperless) 보고·회의 문화,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이틀하여 ‘스마트워크’ 정착에 중점을 뒀다. 또 역대 사장 중 처음으로 93개 지사를 포함한 139개 일선부서를 모두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현장중심경영을 추진해 왔다.

이 사장은 지난 1년이 혁신의 발판을 마련한 해였다면 남은 임기는 실질적인 경영혁신과 제도개선으로 농어촌공사 사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점경영방향으로 ▲스마트워크 정착과 경영혁신 ▲농어촌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해외사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들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혁신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방화를 이끌어 나갈 지역인재 채용을 활발히 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 영천 출신인 이 사장은 행정고시에 합격 1971년 사무관을 시작으로 27년간 농림부에 재직하면서 농업구조정책국장과 농촌개발국장, 기획관리실장, 농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등을 거친 정통 농림행정관이다. 경북대와 일본 교토대학,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아·태 농정포럼 의장과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한국협회장을 지냈다. 처가가 화순 농주로 지역과도 인연이 깊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농어촌공사가 우리 농업의 본거지인 전남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공기업으로 농업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달 본사 나주 이전을 마무리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 농어촌공사 이상무(66) 사장은 4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빛가람혁신도시에서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글로벌 공기업’으로서 우리 농수산업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사장은 농어촌공사는 106년 역사 중 지난 48년 동안 경기도 의왕 본사에서 식량자급과 농업근대화의 기틀을 마련해 왔다면서 40여년 넘게 영산강농업종합개발사업을 비롯해 대단위 농업개발과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기반을 확충하고 곡물자급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했다.

또 1990년대 이후에는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규모화와 농지은행사업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어촌수산물분야와 해외사업을 통해 세계적인 농어촌 공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의 성장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외국 원조를 받아 시작했던 영산강개발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농업개발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러한 농업·농촌개발의 성공모델을 세계로 확산시켜 농어촌을 행복하게 만들고 글로벌 농어촌으로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ICID(국제관개배수위원회) 광주총회 참석차 온 이란 농업전문가들이 금호방조제와 새만금을 보고 그 자리에서 MOU를 하자고 할 정도였다고, 이는 그만큼 우리의 기술이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전했다.

이 사장이 해외사업 확대에 역점을 두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해외사업은 농어촌공사 총예산의 5%에 불과하지만 5년 이내에 20~30%까지 끌어올려 2000억원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신사육 입주와 함께 취임 1년을 맞았다는 이 사장은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않고 창조와 혁신, 소통과 신뢰를



겨울 딸기 맛 보세요. 농협유통이 4일 경남 산청에서 출하된 딸기를 선보였다. 단맛이 강하고 식감이 부드러운 ‘장희’ 품종의 산청산 딸기는 750g 1팩에 2만800원이다. 이날 오전 서울 농협하나로클럽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 ‘엔저 직격탄’ 이틀째 휘청

기관·외국인 매도 공세 1930선 마감
현대차 시총 SK하이닉스에 2위 내줘

코스피가 4일 ‘엔저 심화’ 우려감으로 이틀째 약세를 이어가며 1930선까지 내려갔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7.78포인트(0.91%) 내린 1935.19로 마감했다. 지수는 전날보다 2.82포인트(0.14%) 내린 1950.15로 출발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들이 매도 공세를 퍼면서 하락세로 가락을 잡았다. 전날 뉴욕 증시도 급등 피로감과 유가 하락, 중국의 부진한 경제지표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고 유럽 증시 역시 동반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운송장비와 철강, 화학 등 수출주를 대거 내다팔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4억원과 579억원 순매도했고 개인만 360억원 순매수했다. 프로그래밍매매는 비자외거래 중심으로 935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지수 방향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대형 수출주들이 줄줄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1.46% 내린 121만7000원에 마감했다. 현대차는 3.13% 하락해 시총 순위 2위 자리를 SK하이닉스에 내줬고 현대모비스(-0.42%)와 기아차(-0.20%)도 동반 약세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와 포스코도 각각 1.25%, 3.78% 내렸고 국제 유가 하락 소식에 LG화학도 5.78% 급락했다.

그러나 한국전력(3.16%)과 신한금융투자(2.02%), SK텔레콤(0.54%) 등 대형 내수주들은 오름세였다. 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삼성SDS 상장 기대감에 삼성테크윈이 10.24% 급등했으며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주가 일제히 1~3% 올랐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10.31포인트(1.87%) 내린 542.16으로 마쳤다. 메가스터디가 인적분할 소식에 9% 가까이 급등했다. 코넥스시장에서는 19개 종목의 거래가 체결됐고, 거래대금은 15억6091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시아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10월 광주·전남 주식 거래량·대금
전월비 각각 10.44%·7.25% 증가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주식시장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4일 발표한 2014년 10월 광주전남지역 주식시장 거래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거래량은 10.44%, 거래대금은 7.25% 증가했다.

거래량은 3억4355만주에서 3억7943만주로 3588만주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2조2398억원에서 2조4022억원으로 1623억원 증가했다. 또 지역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2.38%→2.33%)·거래대금(1.63%→1.52%) 모두 감소했다. 거래 상위 5종목은 유가증권의 경우 거래량은 진원생명과학, 키스톤글로벌, 오리엔트바이오, KODEX레버리지, 슈셀생명과학 등이었고, 거래대금은 KODEX레버리지, 삼성전자, 진원생명과학, SK하이닉스, 현대상선 등이었다.

코스닥은 거래량의 경우 하이셀, 바른손이앤에이, 영진로퍼레이션, 솔고바이오, 위노바 등이었고, 거래대금은 다음, 선데이토즈, 넥슨지티, 컴투스, 차바이오텍 등이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삼성스마트폰 중서 브랜드 파워 2위로

2년만에 애플에 1위 자리 내줘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브랜드 경쟁력이 애플에 밀려 2위로 내려갔다.

4일 중국기업브랜드연구소가 발표한 2014년 중국 브랜드파워지수(C-BPI)를 보면 삼성전자는 모바일 부문에서 2위에 랭크됐다. 1위는 애플이 차지했다. 2012~2013년 연속 중국에서 모바일 부문 브랜드파워지수 1위를 지켜 온 삼성전자가 애플에 밀린 것이다. 컬러TV 부문에서는 중국기업브랜드연구소가 조사를 시작한 2011년부터 4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모니터는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켜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디지털비디오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노트북 부문에서 동메달을 받았다. 백색가전 부문은 중국 현지 업체가 꼭 잡고 있다. 세탁기와 냉장고는 하이얼이, 에어컨은 Gree가 4년 연속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삼성전자 외에도 중국에서 브랜드 파워가 높은 국내 기업으로는 주방용품업체인 락엔락이 있다. 락엔락은 밀폐용기 부문에서 3년 연속, 보온병 및 텀블러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총 178개 제품군 가운데 중국산 브랜드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다. 1위로 뽑힌 63개 외국인 브랜드 중에는 미국산이 52%로 가장 많았으며 독일(10%), 한국·일본·네덜란드(6%) 순으로 뒤따랐다. 중국기업브랜드연구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 30개 도시에서 15~60세 거주자 1만3천500명을 대면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C-BPI를 집계했다. 조사 제품군은 2011년 105개로 시작해 2012년 152개, 2013년 170개, 2014년 178개로 점차 늘어났다. /연합뉴스

<p>신축원룸 매매</p> <p>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p> <p>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p> <p>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p> <p>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량있음 (금액 4억~12억)</p> <p>010-6670-9800</p>	<p>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p> <p>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p> <p>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p> <p>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p> <p>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p> <p>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밀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p> <p>(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p>	<p>2층상가물매</p> <p>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 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p> <p>건물 135평 1.2층 80평</p> <p>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p> <p>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2억8천</p> <p>목포시 옹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옹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p> <p>노후주택 적합</p> <p>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p> <p>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p> <p>매가 3억 2천 할인→2억8천</p> <p>010-6832-9700</p>	<p>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p> <p>1.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할인→1억1천</p> <p>2.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p> <p>3.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p> <p>4.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p> <p>062)527-7600</p>	<p>경매 무료 교육</p> <p>11월초 상무지구</p> <p>최고급 시설로 상무지구 중심 학원가에 오픈합니다!</p> <p>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평생최고위반 운영</p> <p>경매 교육후 바로 경매 실경험으로 수익발생할수 있음!!</p> <p>경매 교육에서 낙찰, 건축, 리모델링 판매까지 도와드립니다!</p> <p></p> <p>한국경매학원(상무점) 062)382-5500</p>
--	---	---	--	---